강진군 청년정책협의체, 정책 이해 넓히고 화합다져

강진군 청년정책협의체가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공간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협의체 위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순천과 여수 일원에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청년정책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순천청년센터와 청춘창고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의체 위원 간 교류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날 참석자들은 순천청년센터를 찾아 순천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청년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및 공간 지원 등을 살펴보며 청년 지원공간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청춘창고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의 활동 공간을 둘러보고, 청년 창업 지원과 문화복합공간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여수에서는 아르떼뮤지엄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을 방문해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체험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체 위원들은 평소 나누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의 정책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위원 간 친밀감과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강진군 관계자는 "청년정책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발굴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신석 기자

강진군 청년정책협의체 워크숍 현장 모습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550년 전통 일로 시장서 '온마을 예술장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일로읍 백련문화센터 일원에서 '일로5일시장과 함께하는 온마을 예술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50년 전통 일로장, 문화예술로 꽃 피우다'를 주제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일로 5일시장에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군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풍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국악공연, 오페라, 작가 퍼포먼스, 마술공연,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이를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을 찾는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남녀노소 참여 가능한 부채·머그컵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증정할 예정이다.

/고민재 기자

목포-하당동 새마을부녀회 추석맞이 경로당 나눔

하당동 새마을부녀회가 추석맞이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 시청 제공

하당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수정)는 지난 11일 비파3차 경로당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어르신들에게 송편과 두유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한편, 재능기부로 손톱 정리와 마사지,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김수정 부녀회장은 "어르신들이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상희 하당동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부녀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나눔과 정이 있는 하당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당동 새마을부녀회는 이·미용, 배식, 반찬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살피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함평, 제27회 모악산 꽃무릇축제 대비 집중 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제27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축제 기간 축제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함평군은 15일 "제27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축제를 대비해 이날부터 5일간 축제장 일대에서 집중 방역소독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은 모기 등 위생 해충을 매개로 한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역 활동은 축제장을 비롯한 꽃무릇 공원,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보건소는 방역 차량을 활용해 잔류효과가 우수한 분무소독을, 해보면 방역기동반은 넓은 공간에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는 연막소독을 실시해 방역 효과를 높인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꽃무릇이 만개하는 시기에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평을 찾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축제 기간에도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해 군민과 관광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신안, 이탈리아 피에트라 산타시와 자매도시 추진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 모형박물관(Museo dei Bozzetti)에서 알베르토 스테파노 지오바네티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2019년 첫 방문으로 인연을 맺어 2024년 6월 문화 교류 및 상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후속 협의로 마련됐다. 이날 김태성 군수는 의향서 체결 이후의 추진 성과와 2027년 신안군립미술관 개관 계획을 공유하고, 양 도시 관계를 정식 자매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신안군의회는 2024년 3월 자매결연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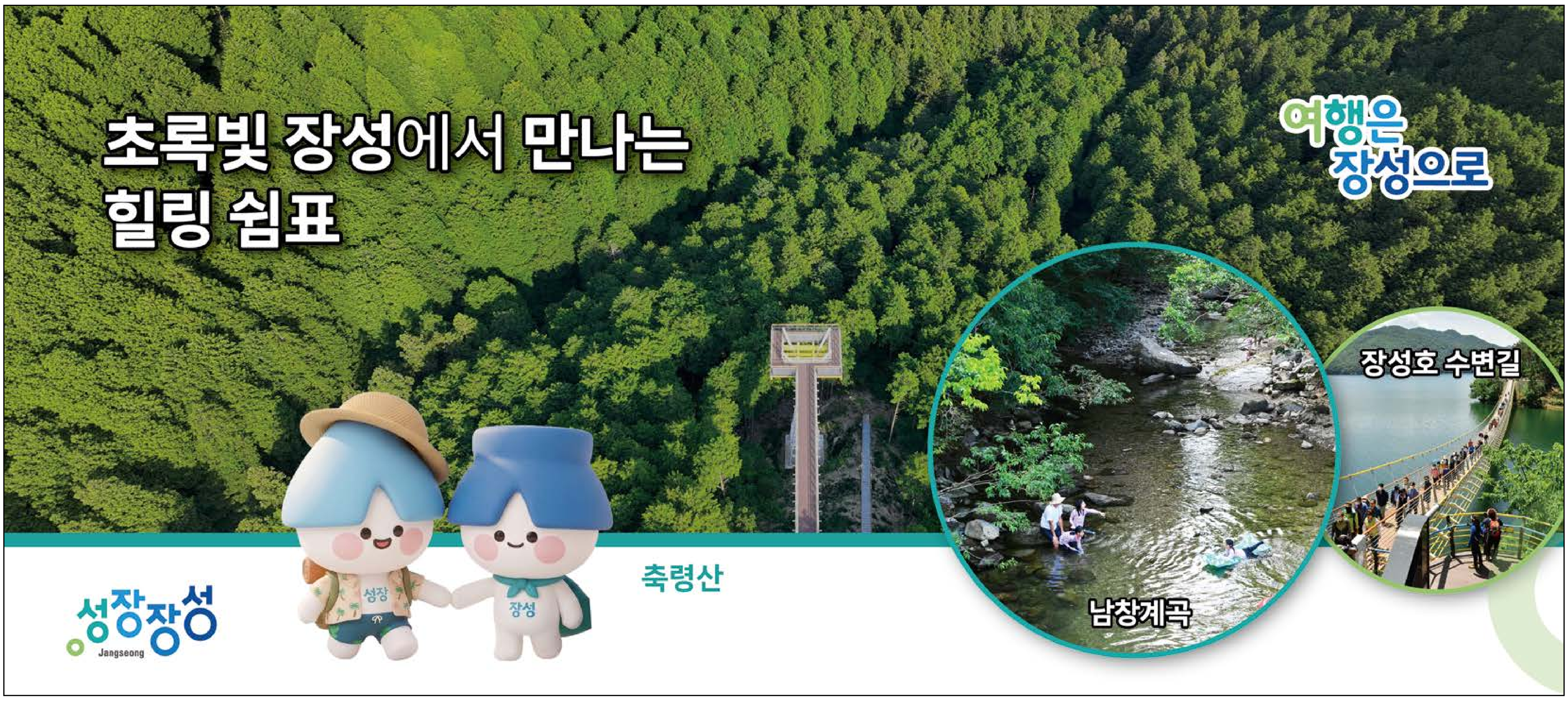
양측은 2027년 신안군립미술관 개관전에서 피에트라산타 조각 전통을 소개하는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추석 전후로 불법 노점상 정비 나선다

영암군이 군민 보행 안전 확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등을 취지로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영암군은 도로변에 난무해 있던 옥수수판매대와 무화과 가판대 등을 지속적 정비에 나섰다.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자진 철거 15개소, 강제 철거 10개소의 실적을 올리고, '무화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법 노점상이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영암·삼호읍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은 ▲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용하는 노점행위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운영하는 이동식 음식판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과 차량 노점 등이다. 영암군은 홍보 위주의 단속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습·고질 위반 행위, 군민 안전 위협 행위 등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물품 압류, 행정 대집행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복산 기자